

한국의 전통 건축

House of Kang-neung Provi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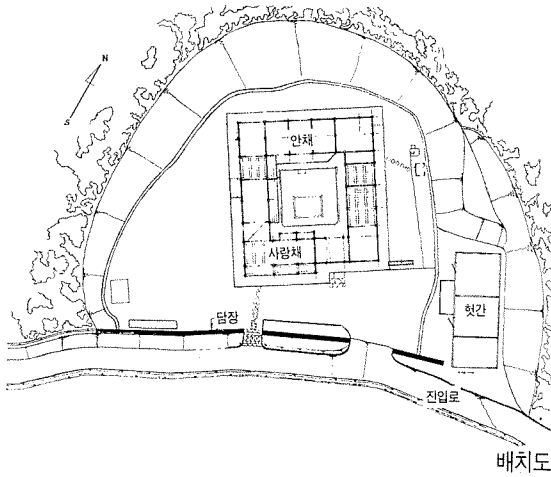
—강릉 曹守煥 가옥—

張順鏞/삼성건축사사무소

by Chang, Soon-Yong



조수환 가옥전경: 작은 언덕을 배경으로 전면에만 토담이 설치되고 그 앞으로 경작지가 전개된다.



배치도

1. 강릉의 山水

조선 땅의 지리를 논한 “擇里志”는 이중환(1690~1756)이 지금으로부터 250여년전에 전국을 유람하여 살핀 바를 기술한 책이다. 그 중에 강원도를 평가하여 “태백산맥이 너무높아 異域과 같아 한 때 놀러가기는 적당하나 오래 살 곳은 못된다.”라고 표현하였다. 조선시대에 살면서 당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분석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대문명이 가져다준 각종 공해와 차량 홍수라는 역기능의 피해로 인해서 위의 평가는 반대로 되어야 할 듯 싶다.

그러나 서편으로 높은 산맥을 끼고 동편에는 바다에 임한 지리적 여건이 주거의 형태에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택리지에서 山水勝地의 하나인 江陵鏡浦臺를 “豁達中雄渾, 峯遠中安穩, 有不可名狀”이라 하였다. 활달한 가운데 웅장하여 막힘이 없고, 요원한 가운데 안온하여 형용하기 곤란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기후 조건만 보더라도 바람이 잦고 폭설이 내리지만 역설적으로 온화한 기후가 만들어 내는 인심이 주택의 배치와 평면구성에서도 내륙지방의 건물과 유사하면서도 또다른 양면성이 엿보인다. 실로 강릉지역의 주거에 대한 모습도 형용하기 곤란한 면이 없지 않다.

2. 조수환 가옥의 배치

이 가옥은 강릉시 유산동 51번지에 소재하고 유형문화재 제 96호로 지정된 건물로서 원래는 강릉도립의료원 근처에 있던 것을 150여년전에 현재의 장소로 옮겨 지은 것이라 한다. 따라서 원래의 모습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 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갖추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의 상태를 기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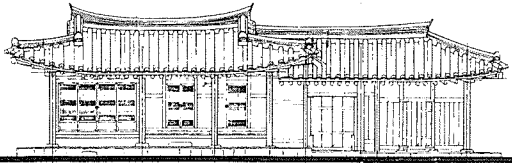
강릉지역에서 전원풍경을 갖춘

마을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마을 전체가 나지막한 구릉으로 감싸여지고, 한 편으로 마을입구로 진입하는 길이 트여지고, 또한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는 언덕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장소로서 큰 길에서는 마을이 직접 보이지 않는 안온한 장소가 선호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집의 사랑채 또는 문간에 서면 소유한 경작지가 내려다 보이는, 구릉을 등진 곳에 주택을 배치하고, 온화한 기후의 영향 때문인지 남향의 주거를 고집하지 않아 동향과 서향에 가까운 배치를 보이기도 한다.

이 가옥은 남동남향으로 배치되었고 집 뒤의 구릉은 서편이 높고 동편이 낮아지는 지형에 집 앞으로는 널찍한 경작지가 전개된다. 남편의 진입로 변에 담장을 쌓아 경계를 표시하였으나 대문은 설치하지 않고 담장이 트인 곳에 계단을 두어 대문역할을 하며 사랑채 마루와 직면하고 있다.

불규칙한 반달형의 대지에 약간 동편으로 치우쳐 ‘口’자형의 주택이 배치되어 전면이 사랑채 앞마당이 되고 서편이 널찍한 안마당이 되며 주택 동편의 좁고 긴 마당이 수도가 있는 뒤꼍이 된다. 전면 담장의 동편에도 담장이 트여 있는데 그 동편에 있는 축사와 창고 건물의 동선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로 동편의 뒤꼍이 바라 보이게 되는 것을 나지막한 토담 한 칸으로 가로막은, 이른바 照壁이 설치되었다.

집 뒤편의 언덕에는 竹林과 松林으로 防風林이 형성되어 있어



남측면도

양양한 하늘과 경작지와 수림이 어우러지는 사계절의 서정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마도 이 같은 집에서 성장하여 도시에 나가 살게 되면 고향을 그리는 정이 더욱 애뜻하여지고, 뜻대로 쉽게 움직일만한 형편이 못된다면 더더욱 귀거래사를 읊게 되는, 한민족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향에 가까운 고향의 모습이 여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3. 평면구성

본체의 평면은 북편에 안채가 들어서고 서남편에 사랑채가 있으며 주위를 행랑채로 연결하여 '口'자형을 이루고 있다.

전편에서 사당과 사랑채와 부엌간의 배치관계를 언급하였듯이 이 건물에서는 별도의 사랑채가 없으므로 앞마당과 안마당이 연결되는 남서편에 사랑채를 두고 부엌을 이와 대칭적인 북동편에 배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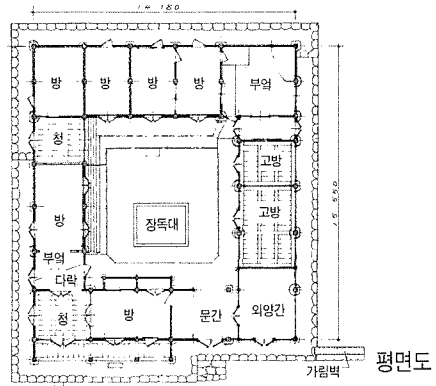
1985년에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세운 안내문에 의하면 안채는 양쪽에 부엌이 있다하였으나 현재는 동편에만 부엌이 있으므로 평면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채에서 특이한 점은 부엌 서편으로 칸막이된 온돌방이 연속하여 있고 대청칸은 마련되지 않아 전면의 퇴마루가 행랑채의 마루로 연속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방된 마루방 보다는 난방이 되는 온돌방이 선호된 것으로 보이고, 보방향의 길이가 12자반 정도 인데도 중간에 기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산간지역에 분포한 겹집구조 형식이 전래되는 모습이며, 아울러 중간의 기둥이 용마루까지 연장되어 종도리를 받는 삼량구조로 되며 고주간을 고미보로 걸고 고미 서까래를 걸치고 진흙으로 바르는 이른바 고미반자로 구성하기에도 편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미반자의

기능은 지붕 밑에 완충공간을 두고 그 밑으로 나무와 흙으로 구성되는 반자를 설치함으로써 외부의 한서기운을 실내에서는 쾌적한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단열 겸 축열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자연스런 공기조절이 되는 점에 있고, 부차적으로는 이곳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는 고미반자를 없애고 평면자로 대치되어 있는 바이며 어느시기에 변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붕을 삼량구조로 하여 서까래가 12자 정도의 긴 부재를 사용한 것은 그러한 목재를 조달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지역적 특성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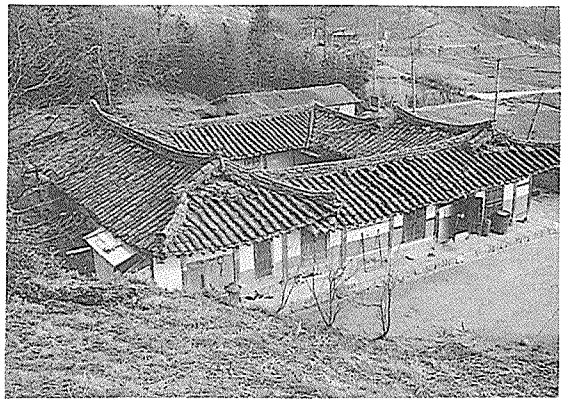
온돌방에서는 전면과 후면에 창호를 두어 환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점은 역으로 실내에 가구를 설치하기 곤란한 평면구성이 되는 것이다. 옛 살림에서는 현대와 같이 다양한 가구가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요즘에 한옥을 설계하려면 가구배치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랑채는 전면 3칸에 측면 1칸반의 팔작지붕 형태이고 여기에 행랑채 지붕이 접속된다. 서남측 모서리에 배치된 사랑대청은 전면에는 사분합문을 설치하고 서측면에는 쌍창을 북측에는 다락을 두었다. 사랑채 온돌방은 전면에 쌍창과 독창을 설치하고 대청쪽에는 맹장지 분합문을 설치하였으며 이 문의 실내측에는 한시를 표구하여 사랑방의 운치를 더하였다. 온돌방의 북편에는 처마 밑으로 가퇴를 만들어 벽장을 구성하였고 방과 대청의 전면에는 반칸의 퇴마루를 두었고 퇴마루의 양측면 부분은 벽체로 막아 주변의 시야를 부분적으로 차단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랑대청 북편에는 부엌간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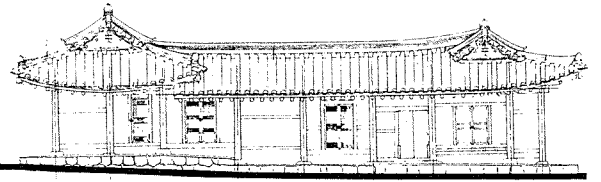
서측면전경 : 원편의 안채와 오른편의 사랑채가 연결되어 口자 평면을 구성하였다.



언덕에서 본 진입로 전경 : 사랑채 앞으로 트인 담장이 대문이고 오른편의 안마당과 담장너머로 마을 경작지와 진입로의 구성이 한가롭다.

접속되어 서행랑 온돌방의 부뚜막이 구성되고 다시 그 북편으로 온돌방 두칸과 마루방 1칸이 이어진다. 이 서행랑채의 마루방이 원래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사랑채 동편에는 대문간이 있고 그 동편에 외양간이 배치되고, 외양간 북편으로 우물마루의 고방 3칸이 연속되어 동행랑을 구성한다. 동행랑의 북편과 부엌의 전면



서측면도



남측면 전경 : 사랑채의 존재가 폐쇄적인 주택에 개방성을 부여하였다.



사랑채 정면 : 대청의 분합분과 온돌방의 장호, 퇴마루, 편액과 주련이 사랑채임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



동측면 전경과 가림벽 : 뒤꼍을 가림벽으로 부분 차단하였다.

사이에는 4자폭의 공간이 형성되어 뒤꼍으로 나가는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지붕이 특이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어 원래는 안채와 분리된 지붕이었던 것을 빗물처리가 곤란하여 근근히 집속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동행랑은 판벽으로 만들어 창고내의 환기를 도모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건물전체의 면적은 정면길이

14.18m에 측면길이 15.55m로 69.4평 정도의 규모이고, 중정의 면적 23평을 제외하면 46.4평이 되는 규모있는 건물이다. 기둥은 평균적으로 7치각을 사용하였고, 기둥의 배치간격은 6자에서 13자의 범위로 다양하며 기본적인 간격은 8자 내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면구성의 기본 개념은 정면 6칸이고, 측면 6칸에 건물간격 반칸을 합하여 6.5칸이 되고 중정부는 3칸에 2칸반이 된다.

강릉지역의 평면구성에서 안채와 행랑채가 분리되고 사랑채가 이어져 전체로는 '口'자형 배치가 되며 건물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약간씩 구성을 달리하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으며 본 가옥에서는 외곽의 기둥배열은 완전한 '口'자형이고 사랑채에만 반칸 퇴가 추가된 모습이어서 평면구성상으로는 경상도 산간지방에서 보이는 '口'자형 건물과 유사하다. 그러나 지붕의 모습이 분절되는 상황을 겹쳐서 생각하면 외관적인 형태는 달라지며, 특히 안채에서 대청의 구성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점은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외양간이 대문간 옆에 건물의 전면쪽으로 배치되는 것은 다른지역과도 공통되는 점이며,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소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관리상의 편리성을 추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인력난과 기계화 영농의 추세 때문에 외양간의 기능이 참고로 바뀐다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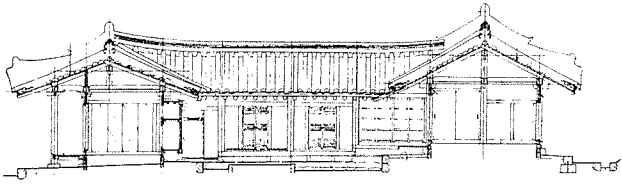
4. 평면의 발전과정

폐쇄적인 '口'자형 평면구성은 산간지방의 생활에서 짐승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대비와 폭설이 내릴 경우 교통두절로 고립되므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급자족할 수 있는 평면형태인 것으로, 오랜 세월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 모습이라 하겠다.

강원도 고성군 왕곡마을의 주택은 겹집형태의 일차형 평면에서 전면쪽에서 외양간을 덧달아 내어 구성하는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강릉지방의 '口'자형 주택의 발전과정을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① 겹집형의 일차형 주거에서 출발하여 소가 있을 경우 외양간을 집안에 둔다.
 - ② 주거면적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외양간을 겹집 밖으로 덧 달아 내면 왕곡마을의 주거 형태가 된다.
 - ③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별도로 사랑채를 만들되 도난과 폭설시를 대비하여 서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도록 하고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口'자형 배치로 발전하고, 이 경우 외양간은 대문간 옆에 두어 관리에 편리하도록 하면 본 가옥과 같은 평면이 구성된다. 결국 '口'자형 집을 건립할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농사규모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주택이다.
 - ④ 영농규모가 더욱 커지고 가족구성원도 다양해지면 바깥마당에 별도의 대문채와 행랑채를 세우게 되고 안채와 사랑채 간의 간격을 더욱 벌려 반 개방적인 '口'자형의 주거형태의 완성단계로 접어 든다. 이런 정도이면 마당의 동북편에 조상을 모시는 사랑채도 건립하고, 가족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고간채 겸 별당이 추가될 수 있다.
- 그리고 농사규모와 집의 규모에 따라 가하여지는 각종의 세제와 사회관습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물의 규모에 제한이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표준적 규모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본 가옥이 포함될 수 있다.



중단면도

면적상으로는 50평 내외이고 실제 사용되는 칸 수로는 부엌 두칸에 온돌방 6칸, 대청 두칸, 고방 두칸에 외양간 한 칸과 문간 한 칸반으로 도합 14칸반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약간의 변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평면에서 온돌방 한 칸에 평균적으로 2인이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정상적인 최대 거주인원은 12명이 된다. 현대의 핵가족 개념으로 보자면 대규모 가족구성이라 하겠으나 약간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족구성이 삼대 또는 사대에 이르므로 12명은 표준적인 인원수가 되는 것이다.

연면적을 인원수로 나누면 1인당 소요면적이 4평 정도인 것을 알 수 있고, 현대적인 주거개념의 소요면적과 유사한 것이다. 다만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 때문에 외양간과 창고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으나 한옥에서 활용되는 외부공간의 면적도 있으므로 단순한 수치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정면구성과 가림벽(照壁)

이 건물의 정면에서는 좌측에 있는 사랑채 세칸이 팔작지붕 구성이고 동측의 문간보다 반칸이 돌출되어 있어 시각적인 중심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랑방 정면으로 崇德齋라는 堂號를 게첨하고 기둥에는 먹바탕에 흰 글씨로 초서체의 주련을 평주와 고주에 각각 걸어 놓아 학문을 하는 사랑방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사랑방과 문간의 사이에는 회벽으로 발라 구분하고 있는데 원래는 토벽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그 편이 돌출되어 보이는 회벽보다는 색조가 적절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랑채 보다 지붕이 한 단 낮게 구성하여 접속되는 문간의 지붕은 동측단부에서는 우진각으로

처리하여 문간채의 볼륨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이부분의 문과 벽은 판벽과 판문으로 하고 상단부에만 토벽으로 처리한 전형적인 기법을 보이고 있다.

외양간에 소가 드나드는 문은 여닫이와 미닫이의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여닫이로 하여 바깥쪽으로 여는 것은 기능상 당연한 것이고, 출입하는 대문을 바깥쪽으로 여는 경우와 안쪽으로 여는 방법에서 본 가옥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이 점은 대문에 들어서서 외양간의 출입문과 사랑방, 아궁이를 대문이 가로막게 되는 것을 피하고 대문간의 공간활용을 위해 선택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면 기단의 동측끝에서 길이 9자 정도로 토담을 설치하여 조벽을 구성한 상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이와 같은 모습이 한옥에 응용되는 인간적인 면이라 하겠다. 이담이 뒤꼍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결코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뒤꼍에서 앞마당으로 나오는 동선도 필요하므로 완전히 차단하지 않을 바에야 차단한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다는 개념일 것이다. 우리의 생활문화에서 헛기침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라 하겠으며, 제주도에서 집주인의 유무에 따라 문간에 표시해 놓는 방법도 동일한 착상이 아닐 수 없다. 역설적으로 해석해 보면 집주인으로서의 외부인이 보지 않도록 조치하여 놓았으니 그 다음은 방문객이 알아서 처신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예절을 지키지 못해 생기는 잡음과 문제는 객이 담당할 몫이라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다분이 낙천적 기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예를 범사에 으뜸으로 치는 민족적 정서를 건축적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구현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아마도



동측면과 뒤꼍 : 가림벽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안채 정면 : 온돌방의 영창을 완창형으로 하여 고급스런 꾸밈으로 안채의 성격을 표현하였다.



동편 행랑부 서측면 : 판벽에 판문으로 고방을 만들고 원관에 뒤꼍으로 나가는 출입구를 두었고 마당 중앙에 장독대를 설치하여, 농사 장독들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점이 서양건축에서 가들 것은 완벽하게 감추어 버리는 것과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이라 하겠으며 虛實相蒙이라는 분명치 않은 개념이 건축에서 분명하게 적용되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기법은 현대 건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으로 생각된다.